

전북

“예산 때문에...” 무상급식 딜레마

도교육청, 예산 25%인 年1000억 확보 고심...다른 사업도 ‘발목’

전북도교육청이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무상급식’ 딜레마에 빠졌다. 김승환 전북도 교육감은 선거공약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은 내년부터 유치원·초·중학교부터 전면 실시하고, 오는 2012년부터는 고등학교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환 전북도 교육감은 선거공약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은 내년부터 유치원·초·중학교부터 전면 실시하고, 오는 2012년부터는 고등학교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삭감하고 있다.

실제로 김승환 교육감은 취임 한 달도 안돼 올해 사업예산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보건·급식·체육활동 등 학생 관련예산 20억2500만원 ▲교육 일반사업 32억8200만원 ▲학교 교육여건개선 사업 137억원 등 총 290억원을 잘감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자체와 내년도 초등 학교 전면 시행에만 구체적인 합의점을 봤 중·고교에 대한 예산배분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를 지자체와 50%씩 부담한다 해도 549억원에 달하며, 인건비와 급식 시설비 및 현대화 사업 등에 소요되는 비용까지 감안하면 도교육청은 매년 1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급식에 쏟아부어야 한다. 이는 도교육청 연간 예산 4000억원의 4분의 1수준에 달하는 규모다. 그만큼 일반 사업비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도교육청의 이 같은 행보에 대해 교육계 일부에서는 “무상급식 때문에 전북교육의 다른 현안 사업들이 발목을 잡히는 것 아니냐”며 “전면적인 무상급식도 좋지만 다른 현안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수위를 조절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1일 익산시 영등동 보석공단지 귀금속보석 판매센터에서 열린 제44회 익산 보석대추제장을 찾은 관계자들이 전시물을 살펴보고 있다. 다음달 1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축제에서는 24K와 다이아몬드를 제외한 모든 귀금속·보석 제품을 2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고창군, 패러글라이딩대회 24일 개최
전국 최고의 활강장으로 손꼽히는 고창 방장산 활강장(해발 630m)에서 이따라 패러글라이딩 대회가 열리고 있다. 고창 군수배 전국패러글라이딩 대회(10~11일)와 2010 대한민국 패러글라이딩 챔피언전(13~17일)에 이어 ‘제4회 전북도지사기 전국 패러글라이딩대회’가 24일 개최된다.

전국 치안 평가 1위 ‘전주 완산경찰서’



전주 완산경찰서(서장 하태춘)가 최근 경찰청 주관의 ‘치안성과 평가’에서 영예의 전국 1위를 차지, 경찰청장 표창과 상급을 받았다.

전국 22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평가에서 완산경찰서는 전북경찰의 역점시책인 모든 치안시스템을 주민중심으로 재편하는 ‘주민중심 정정치안’의 뛰어난 운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완산경찰서는 21일 경찰발전위원회 한광수 위원장 등 내빈과 경찰관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 65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주준산 사이버수사팀장이 근정포장을 수상하고 최용기 교통조사계장 등 3명이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또 생활질서계 김규성 순경 등 10명이 경찰청표창, 생활안전계 김철근 경위 등 9명이 전북청장 표창, 정보계 황종현 경사 등 29명이 경찰서장 표창을 받았다.

하태춘 서장은 “항상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정읍 단풍’ 세계화 시동

시, 품종 개발·내장산 일원 단풍랜드 등 조성

전국 제일의 단풍고장인 정읍시가 ‘단풍의 세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1일 정읍시에 따르면 내년부터 2014년까지 내장산 쌍암동(조각공원) 일원 10만㎡에 단풍 박물관과 연구소를 갖춘 ‘단풍랜드’(8만㎡)와 단풍나무 증식·농가보급을 담당하는 양묘장(2만㎡)을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정읍 방산선과연구소와 연계해 단풍품종 개발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한 시는 매년 1만본을 목표로 단풍나무 식재 보급운동을 전개하고 가로수 길과 자전거 길, 산책로, 등산로, 마을 길 등 5개소의 ‘테마별 단풍 명품길’도 조성할 계획이다. 전북과학대~신정 사거리~내장산IC를 거쳐

내장 터널~부전삼거리~칠보면 수처리 구간에는 ‘단풍 100리 길’ 조성이 한창이다.

특히 시는 단풍분재 전시회 및 트래킹 대회 등 전국 규모의 ‘단풍문화축전’도 개최해 관광객들이 정읍단풍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생기 정읍시장은 “정읍의 관광 브랜드는 단풍”이라며 “정읍단풍의 세계화를 슬로건으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읍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

동학농민혁명사업회 ‘녹두대상’ 수상

고창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이사장 이강수)는 “동학농민운동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학술·연구사업에 기여한 단체에 주는 ‘제3회 녹두대상’ 수상자로 (사)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를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991년 설립된 (사)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는 그동안 ▲동학농민혁명 100주년 기념대회 개최 ▲동학농민군 명예회복 및 서훈 추진사업 ▲고창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기금회 설립 ▲동학 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노력 ▲동학농민혁명 단체협의회 창립 노력 ▲창작 뮤지컬 ‘녹두꽃이 피리라’ 서울공연 개최 등 연구사업과 정선계승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활발하게 펼쳐왔다.

시상식은 오는 11월 5일 고창 동학농민혁명 ‘무장음성축제’ 기념식장에서 열린다.

/전북취재본부=조종욱기자 jong@

‘친환경 농업단지’ 위해 농민들 뭉쳤다

순창군, 완주 웰컴 센터 등 선진지 벤치마킹

순창군이 민선 5기 공약사업으로 추진중인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벤치마킹에는 신현승 부군수, 최용구 농업 군지부장, 김규철 산림조합장, 단위농협 조합장·이사, 축협·산림조합 관계자, 공병은 친환경농업인 연합회장·회원 등 25명이 참여했다.

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면서 “내년도 사업 유치를 위해 시급한 사업추진 선정에 적극적인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순창군은 내년도 사업에 응모해 친환경 대상지구로 선정될 경우 (국비 40% 포함)의 사업비를 투자해 친환경 농업발전의 시발점이 될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를 조성하게 된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

“흥부네 박타러 가세”

국민민속극악원, 30일 흥부가 공연

전북 국민민속극악원은 오는 30일 오후 3시 남원시 어현동 국악원내 예원당에서 10월 상설 공연으로 명인·명창과 함께하는 신(新)관능을 ‘흥부’를 공연한다.

이번 공연은 신영희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관소리 (춘향가) 준문화재) 명창이 관소리 ‘흥부’를 들려주며, 강정숙 명인(국립국악원 민속악단 예술감독)이 ‘서공철류 가야금 산조’를 연주한다.

또 창극 ‘흥부’가운데 ‘놀부 박타는 대목’은 연극적인 느낌을 살려 창극의 관소리성을 강화한 구성과



연기자들의 특성을 살린 빠른 극의 전개 등 뛰어난 구성이 돋보이는 신명의 관능음을 감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연 관람료는 무료이며 지정 좌석제로 운영된다. 문의 (063-620-2328)

/전북취재본부=백선기자 bs8787@

GG경매 컨설팅(주) advertisement containing real estate listings, company information, and contact details. Includes sections for '상기주택', '공인중개사', '주택', '임몰/빌라/다세대/오피스텔', '추천물건', '토지(전/답/임야/대지)', '상가/주택', and '상가/주택'.